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한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나다나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매가 동일인물이라고 봅니다. 바돌로매라는 이름은 [Bart]아들+[Tolmai] 즉, 돌로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실제 이름은 따로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 전도받은 친구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다 좋은 모습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먼저,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때 나다나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고 반문했어요. 빌립은 대답했죠. “와보라!” 당시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신 것으로 오해되었던 거죠.

문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이란 존동네를 무시하는 듯한 말 때문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한 마을로서 당시 멸시받던 지역이었거든요. 마치 강남 사람들이 강북에 대해 폄하(폄훼)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던 관용적 표현이 바로 ‘갈릴리에서 혹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겁니다. 나다나엘도 예외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육신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시골 출신?? 그의 출신지와 직업, 부모와 형제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특정한 사건이나 일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생각하는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편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가 무거울수록 땅에 더 빨리 떨어진다고 말한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간주되었으며 분명히 그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두 개를 가져다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89년 갈릴레오는 박식한 교수들을 피사의 사탑 아래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정상으로 올라가 10파운드와 1파운드 추를 밀었습니다. 둘 다 같은 순간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교수들은 시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dana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편견이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8:34,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던 삶의 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겠습니까? 학식과 재물, 명예와 지위를 고루 갖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과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둘째, 그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니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지만, 빌립의 말처럼 ‘와보라’ 했으니 일단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두 가지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적 의미와 영적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참(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사’ 라는 단어는 본래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를 쓸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간사’ 라는 단어의 정의는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세 명의 수도사” 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먼 섬에 세 수도사가 있었다. 아주 외딴 섬이기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주교는 큰마음을 먹고 그 섬에 가서 수도사들을 보기로 작정하고 떠났다. 그 섬에 도착하여 수도사들을 보니 주기도문도 모르고 있었다. 주교는 최선을 다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만족하며 그 섬을 떠나 돌아왔다. 배가 바다 한 가운데쯤 왔을 때 바다 위에 세 수도사가 물위를 걸어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뱃가에 와서 말했다. “주교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주교는 어안이 병병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세 수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세분이시고 저희도 셋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교는 그들의 거룩함과 단순성에 탄복하여 말했다. “그대들의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거하시오.”

토마스 머튼은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단순화하라. 당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영성화하라” 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함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수많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유일한 목적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하고 사는 단순함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단순함을 말하는 거죠.)

나dana엘은 ‘간사’ 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깜짝 놀라 나dana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8절). 나dana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사실은 나dana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일인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종종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묵상의 장소요 경건의 장소였다고 해요. 그는 평소에도 ‘진리’ 를 사모하며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마치 다른 볼거리 들을 거리들이 많지만, 그런 와중에도 매일 성경말씀 읽고 매일 매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dana엘은 당시의 보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서도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붙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